**교제와 나눔**

**ㆍ오늘은** **교회창립37주년 기념주일 및 어버이 주일입니다.**

교회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. 앞장서서 섬겨오신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, 우리 부모님들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. 예배 순서에 함께 참여해주신 모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.

**ㆍ당분간 온라인 가정예배는 계속되겠습니다.**

**ㆍ말씀편지도 오프라인으로 함께 만나는 그 날까지 계속됩니다.**

**ㆍ헌금:** 가능하면 매주교회 구좌로 송금해 주시고,

어려우시면 모아두셨다가 나중에 함께 봉헌하세요.

**ㆍ생일축하:** 김요한, 이근봉, 단주현, 김한진, 정이나, 나승민, 이승열

**\*\* 함께 기도합시다 \*\***

1)코로나19를 속히 잠잠케 하여 주소서.

2)확진자들을 치유해주시고, 곳곳에서 수고하는 이들을 굳건히 지켜주소서.

3)언제 어디서든 간절함으로 예배하게 하소서. 예배당 예배로 잘 전환되게 하소서.

4)우리 자신을 깊이 돌아보고,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소서.

5)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으로 함께 이겨내게 하소서.

6)경제 문제 등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잘 넘기게 하소서.

**◆말씀일기 일정**

일/시10:1-18 월/시11:1-7 화/시12:1-8 수/시13:1-6

목/시14:1-7 금/시15:1-5 토/시16:1-11 일/시17:1-15

**◆114 운동-**하루**(1)** 한번**(1)** 말씀일기 & 성경 **(4)**장 통독

**(성경 200독 대행진: 174독)**

**◈ 예배위원 안내 ◈**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 | **5월 10일** | **5월 17일** | **5월 24일** | **5월 31일** |
| **예배기도** | 김한진 | 민명희 | 박성희 | 김종권 |
| **말씀일기** | 송인선 | 석호선 | 김영희 | 전하라 |
| **안내위원** |  |
| **헌금위원** | 가족 중 |
| **애찬봉사** |  |  |  |  |

**37-19호 2020년 5월 10일**



 **“너는 내 것이라”** (사43:1)

주일예배: 12:00 각 가정

유초등부예배: 12:00 각 가정

청소년부예배: 12:00 각 가정

토요기도회: 07:00 각 가정

선교성경아카데미(MBA):

 잠시 휴강

**담임/ 손교훈 목사** Kyo-Hoon Sohn

☏ 02131-5249 186 HP. 0176-5779 1004

**교육/ 김요한 목사** HP. 0163-139 2225

**교육/ 이영환 전도사** HP. 0163-143 2804

**선교협력/ 이광열 목사** HP. 0157-7388 7498

1983년 5월8일 창립 **뒤셀도르프선교교회**

 **교회 홈페이지 duemission.de**

 **교회주소Alte-Landstr. 179, 40489** **D****üsseldorf**

**교회창립37주년기념 및 어버이주일 예배**

오

인도: 손교훈 목사

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

|  |
| --- |
| 입례송/Eingangslied 왕이신 나의 하나님예배부름/Eingangsgebet 시84:1-4 |
| 찬송/Gemeindelied 22장 만유의 주 앞에  |
| 신앙고백/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 |
| 성시교독/Wechselwort 교독문 98번 |
| 찬송/Gemeindelied 579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 |
| 기도/Gebet 김한진 장로말씀일기/Bibeltagebuch 송인선 권사섬김감사/Danke 전하라 교우찬양/Chor ‘우릴 사용하소서’ 이영환 전도사  ‘선한 능력으로’ 청소년들‘시온성과 같은 교회’ 선교교회찬양대 |
| 성경봉독/Text zur Predigt **마태 16:13-20** |
| 설교/Predigt  **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’** 손교훈 목사 |
| 기도/Gebet 설교자찬송/Gemeindelied 208장 내 주의 나라와봉헌/Kollekte ‘요게벳의 노래’ 허지은 집사  |
| 교제/bekantmachung 교회생일 축하인사: 정원, 송수미/배서연, 신상희/조유나, 이윤석-다솔, 서희정/박재희-승희, 손하음, 구소피, 민지음-채우, 구가희, 손민해 어버이은혜 감사인사: 이윤석, 조유나, 박승희-재희, 이다솔, 손하음, 구요나, 박유진, 이영환 주기도송/Vaterunser 635장 하늘에 계신 아버지축복/Segen 손교훈 목사**\*\*교회 구좌**Baek, Han-Jin KimBank: Deutsche Bank PGK DüsseldorfIBAN: DE29 3007 0024 0598 1931 00BIC: DEUTDEDBDUE |

 |  |  |

**<설교>**

**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**(마16:13-20)

사람이라면 그 어느 누구도,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피해갈 수 없는 질문.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방향과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는, 최고 최대의 모멘텀이 되는 질문. 그것이 바로 “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?” 즉 **‘너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인가?’** 하는 질문입니다. 제가 그간 설교와 성경공부 등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수 없이 던져왔고, 또 던지게 될 모든 도전과 자극은 결국 이 질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찾으시라고 하는 권면입니다. 또한, 질문에 대한 바른 대답 이후에 펼쳐지게 되는 놀라운 천국을 영원히 맛보며 살기를 간절히 기대해서입니다.

‘너는 나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?’ 이 질문에 대표적으로 답을 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. **베드로**는 이 ‘빌립보 가이사랴’에서의 고백 이전이나 이후에도 이러저러한 허물을 적지 않게 보여주는, 연약한 한 인간입니다. 그러나, 그 **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, 그가 우리의 귀한 믿음의 선배가 되는 이유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** 했기 때문입니다. 16, “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, **주는 그리스도시요,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**.” 아멘! 이 고백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**이 고백에서부터 진정한 교회가-천국의 삶이 시작**되기 때문입니다.

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‘갈대’라는 뜻의 **시몬**이었지요. 17절의 “바요나 시몬”은 바로 **‘요나의 아들 시몬아’** 그런 뜻입니다. 요한복음 1장에 따르면, 예수님께서는 ‘시몬’을 게바 즉 ‘반석’이라고 부르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아람어인 ‘게바’를 헬라어(그리스어)로 번역하면 ‘베드로’(Πετροος)가 됩니다. 바로 이 베드로의 고백, 즉 **‘반석’ 같은 고백**이 그의 입을 통해 표현되고, 그 반석 같은 고백 위에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. **교회는 결코 건물이 아닙니다**.

베드로의 이 고백이 이루어진 **‘빌립보 가이사랴’라고 하는 곳은** 이스라엘 최북단 지역으로 헐몬산(헤르몬산)에서 흘러내리는 물로 인해 풍부하고 경치가 아름다운 도시입니다. 헤롯대왕이 죽은 후 그 아들 헤롯 빌립이 이곳 이름을 로마 황제인 가이사랴와 자신의 이름 빌립을 넣어 ‘빌립보 가이사랴’라 하고 가이사랴에게 헌정한 곳으로, 소위 ‘풍요롭고 비싼 땅의 대표지’라 할 수 있습니다. **예수님이 굳이 이곳에서** 제자들에게 ‘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?’는 질문을 던지신 이유는 바로, 교회는 이렇게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화려한 땅이나 건물이 아니고, 눈에 잘 안 보이는 듯 하지만 생생하고 견고한 베드로를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임을 더욱 분명하게 보여주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
우리는 이번에 **코로나19를 통해, 온 몸으로 교회가 무엇인지 배우고** 있지요. 이것저것 다 제하고 빼도, 마지막까지 남는 교회의 본질,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**‘고백’**이요, 반석같은 고백을 드리는 **‘사람’**입니다. 교회당 건물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것만으로는 교회가 아닙니다. 설사 건물이 없다해도, 주 예수를 향한 고백이 있고, 그 고백을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.

**예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** 한 사람, 한 사람이 교회요,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이 교회입니다. 교회당에 모여 얼굴을 맞대고 만나지 못해도, 늘 서로를 기억하며 비록 온라인이지만, 함께 말씀과 기도로-예배로 묶여 있는, 큰 가족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. 이번에 **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은 것들을 붕괴시키고 바꾸었습니다**. 위대한 제국도, 권력도 다 코로나19 앞에 무릎꿇습니다. 하지만, **코로나 바이러스도 결코 붕괴시킬 수 없는 것이 교회**입니다. 아니 어쩌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더욱 새롭게 되고 정결케 되는 것, 사모하는 마음은 더욱 커지고, 점점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것, 그게 ‘교회’입니다.

뒤셀도르프선교교회가 **설립된 지 37주년 되는 주일**을 우리는 **어렵고도 특별한 상황 속에** 맞이하게 되었습니다. 그러나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은 더욱 간절히 주를 향하고 서로를 향합니다. 우리를 예수 안에서 새 성전-교회되게 하신 하나님께 더욱 뜨거운 감사로 영광 올려드립니다. 한국을 떠나 독일 땅으로 오시고, 뒤셀도르프선교교회 시작 초기부터 지금까지 함께 해 오신 1세대 어르신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. 선교교회 교인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, 자식들을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 애쓰는 젊은 엄마 아빠들, 교회학교 선생님들께 감사와 칭찬의 박수를 드립니다. 믿음의 대를 이어 멋지고 아름답게 커 가고 있는 우리의 아들 딸들에게 고마운 인사를 전합니다. 선교교회 온 교우들께 축복의 박수를 보냅니다.

주께서 **반석 위에 세워주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**. 왜냐하면 반석 같은 교회인 우리에게 **놀라운 것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**. 그것은 바로 “**천국열쇠**”(19)입니다.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가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,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, 기막힌 열쇠입니다. 바로 그 천국열쇠를 베드로가 쥐게 되었고, 오늘 우리가 그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. 할렐루야!

무엇이든지 매고 푸는 이 **천국열쇠를 잃어버리지 않기를** 바랍니다. 이 열쇠로 수시로 천국문을 여시기 바랍니다. 천국의 열쇠는 첫째, **기도의 열쇠**입니다. 둘째, **예배의 열쇠**입니다. 셋째, **교제-나눔과 섬김의 열쇠**입니다. 이번 코로나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간 슬그머니 잊혀졌던 교회의 본질에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었습니다. 끝까지 남는 것은 말씀과 기도, 예배라는 것을 말입니다.

그리고, 우리가 **더욱 사모하게 되는 교회의 본질 또 하나**가 바로, **‘교제’(코이노니아)**입니다. 특히 한 공간에서, 한 식탁에서, 한 나라(구역), 한 부서에서 얼굴을 맞대고 모임을 갖고, 서로를 안아주고, 토닥여주고, 손을 잡아 주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잘 느끼고 있습니다. 우리끼리만이 아니라, 교회들 서로간의 친교, 그리고 세상의 이웃들과의 교제-그들과 마주 앉아 대화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 섬기고 나누는 이것은 **교회된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아니라, 반드시 회복해야 할 것들**임을 온 몸으로 배우고 있습니다. 디지털 시대가 발달해 갈수록, 교회는 그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나가야 하는 부분이 있고, 반면 끝까지 소중한 가치로 붙들어야 할 그 무엇이 있는데, 그것이 바로 아날로그 교제입니다. 따뜻하게 손을 잡아 주고, 어깨를 두드려 주고, 함께 떡을 떼고 잔을 나누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, 제가 두말하면 잔소리겠지요. **곧 그 날이 오겠지요. 와야 합니다**.

우리는 우리에게 쥐어져 있는 “천국 열쇠”를 사용하여 수시로 천국문을 열고, 서로서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불의와 부조리, 불공평 등 악한 것들은 꽁꽁 묶는 열쇠, 하늘평화를 열어가는 열쇠가 우리의 열쇠 되어야 합니다. 막힌 담을 열고, 닫힌 마음을 푸는 위로와 격려, 축복의 열쇠가 우리 손에 있습니다. **우리가 교회입니다, 할렐루야!**

**기도:** 아버지 하나님 안에 사는 복, 주의 집에 사는 복-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는 복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주를 찬양합니다. 아버지와 어머니, 아들과 딸들, 자녀 손에 이르기까지, 이 귀한 가족을 허락해 주시고, 큰 가정 뒤셀도르프선교교회로 함께 지어져가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. 건물이나 그 어떤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니라, 우리의 신실한 믿음의 고백이 교회임을, 예수 없이는 못 살겠다는 우리들이 교회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 맡겨주신 천국의 열쇠를 통해, 교회가 교회되게, 성도가 성도되게, 예배가 예배되게 하는 일에 저희들, 힘을 다하겠습니다.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!